

문화 및 언어 측면에서 한국어와 인도어의 언어 표현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Indian verbal expressions with the aspects of Linguistic and cultural education

Dr. Neerja Samajda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dia

서론

언어란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어는 사회 혹은 문화 속에서 그 기능을 행한다. 이렇게 문화가 갖는 다양성과 동질성에 따라서 생성되는 언어 또한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Brooks(1968)는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에 관하여 Sapir(1985), Rivers(1981), Damen(1997) 등이 언어와 사회, 문화간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했다. Edward Sapir와 Benjamin Whorf의 이른바 Sapir-Whorf Hypothesis에 의하면 한 개인의 세계관은 그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언어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한 언어의 문법 등은 개인의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지침서이며 또한 개인의 사고 작용을 형성 짓는데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처럼 언어란 한 나라의 문화적 요소이며 다른 나라의 문화체계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총체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표현방식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들은 특히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부터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바탕이 되는 문화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표현구조 속에 나타나는 유사 또는 상이한 문화적인 요소 또는 사고 방식을 통해서 두 나라의 언어 문화 차이를 파악하고 그것을 외국어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문화에 나타나는 언어표현의 차이

1) 의식구조의 차이

의사소통의 양식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작용됨을 부인할 수 없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지듯 한국인들과 인도인들의 의식구조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과 인도인들의 사고 유형의 표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한국인은 동질적 문화 집단 속에서 항상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며, 지향적, 의존적, 간접적, 형식적, 감정적 양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자기 주장적, 독립적, 직접적,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구조의 차이에 따른 언어표현

한국어 표현	힌디어 표현
집단주의 예) 우리나라	개인주의 예) मेरा घर
계층주의 호칭 - 직함사용 예) 000사장님, 000선생님 연장자에 대한 예우 (높임말 사용)	평등주의 (호칭사용시 이름/성함 사용) 예) गुप्ता जी 연장자에 대한 예우 (높임말 사용)
간접성 의사표현시 우회적 표현사용	직접성 의사표현시 yes(हाँ)/no(नहीं)의 사용

2) 한국어와 힌디어의 영어 외래어

외래어가 한 문화의 구조 속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원어가 새로운 문화와 결합되는 경우 그 문화들이 서로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면 더욱 외래어 사용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힌디어에는 영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여 많은 외래어가 양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외래어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언어의 발음구조의 차이에 의해 잘못 기억되거나 표현되어짐으로써 잘못된 외래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편의적으로 긴 단어를 짧게 표현하게 될 때도 이러한 잘못된 외래어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영어표현	한국어표현	힌디어표현
cheating	cunning	cheating

part-time job	arbeit	part-time job
motorcycle	auto-bi	motorbike
Pen	Ball pen	ball pen
notebook	note	notebook
Marker	sign pen	marker
Magicmarker	Magic	Magic marker
Vomit	overeat	vomit
rear view mirror	back mirror	rear mirror
mobile phone	handphone	mobile phone
stapler	Hotchkiss	stapler
white shirt	Y-shirt	White shirt
brake fluid	brake oil	brake oil
air conditioner	aircon	air conditioner

3) 관점의 차이

언어사이의 관점의 차이로 언어가 심리, 사회적으로 갖는 이변의 뜻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I see' 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어와 힌디어에서는 '알겠어요/ ठीक है'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청각을 중심으로 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영어표현	한국어표현	힌디어표현
'I see'	'알았어요, 알겠어요'	'ठीक है / जी '

4) 사람 중심의 표현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사람중심의 표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사물중심이나 종속적인 표현이 많으며 힌디어에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1인칭의 개인적 성향이 강하니 사람중심 표현이 흔히 사용되는데 사물중심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어	영어	힌디어
사물중심 예1)그 옷이 좋은데' - 옷이 좋다는 사물 자체를 묘사	사람중심 예1) I like your pants	사람중심 예1) आप का पैंट बहुत अच्छा है। 사물중심 예1) यह पैंट तो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5) Kluckhohn-Strodtbeck의 문화모형

Kluckhohn은 문화의 현상을 분석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바라보면서 문화의 가치체계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본성, 자연과 인간의 관계, 시간의식, 행동, 사회관계 등 5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표현을 분석하여 그러한 표현 속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그리고 “민중들의 경험과 지혜와 교훈에서 우러난 진리를 지닌 간결하고 평범하고 은유적인 관용어”인 속담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나타난 두 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인간의 본성**

힌디어에서는 인간성을 표시하는 몇 가지의 속담은 다음과 같다.

अंत भला तो सब भला
आप भला तो जग भला
हराम की कमाई, हराम में गंवाई.
बड़ों की बड़ी बात.
जरूरत के वक्त गधे को भी बाप बनाना पड़ता है
जाको राखे साइयाँ मार सके ना कोय
जैसा बोओगे वैसा काटोगे
नेकी कर दरिया में डाल
बड़े मियाँ सो बड़े मियाँ छोटे मियाँ सुभान अल्ला
मित्र वही जो समय पर काम आवे

한국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속담을 통해 살펴보자.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굶다.
마음을 잘 가져야 죽어서도 천당 간다.
마음이 바르면 일도 바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공경한다. 어진 벗과는 즐길수록 유익하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제 가방 달라고 한다.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돌배 썩은 건 딸 주고 단배 썩은 건 며느리 준다.
돌봐 줄 힘은 없어도 휘방 놓을 힘은 있다.
돌 든 놈은 돌로 쳐야 한다.
똥누리 갈 적 마음 다르고 똥누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동네색시 믿고 장가 못 간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음은 깨끗한데 행동은 더럽고 마음은 뱀이요 말은 부처다.
웃음 속에 가시 있고, 웃음 속에 칼이 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세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일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인도에는 부처님, mother Teresa, Gandhi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일반인들은 인간성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갖고 죽을 때 까지 그것을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는 기본적으로 선하고,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성으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Kluckhohn모형에 따라 인도인들과 한국인들의 비슷한 인간의 본성은 다음과 같이 표지 될 수 있다.

인도인들의 인간의 본성

Orientation	Range
Human Nature	Basically Good

한국인들의 인간의 본성

Orientation	Range
Human Nature	Basically good

b) 자연과의 관계

인도에서 자연과 관련된 속담은 다음과 같다.

आकाश-पाताल एक करना

आकाश से तारे तोड़ना

आकाश छूना

ईद का चाँद होना

ज़मीन पर पाँव न रखना-

सातवें आसमान पर होना

घाट-घाट का पानी पीना

이러한 속담 속에서 보이듯이, 인도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인생을 스

스로 개척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서 Kluckhohn모형에 따라 인도인들의 인간의 본성은 다음과 같다.

Orientation	Range
Relationship to Nature	Mastery to Nature Harmony with Nature

한국인들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속담 속에서 볼 수 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운은 하늘에서 준다.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며, 하늘은 무심하지 않고, 하늘 뜻은 거역 못한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인생은 일장 춘몽이며, 인생은 연극 같다.
 운은 얻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쉬우며 운은 자기에게 달렸다.

이러한 속담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다분히 한국인들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자기의 의지성보다는 숙명론, 운명론, 또는 타의에 의해 영위 되어지는 것을 당연시 한다.

Orientation	Range
Relationship to nature	Harmony with Nature

c) 시간의식

인도인들은 시간의식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다분히 미래 지향적이라고 보여진다. 인도 사람들의 적극적인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것은 속담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चार दिन की चांदनी फिर अँधेरी रात ।
 तुम तो ईद के चाँद हो गये ।
 बीता हुआ समय कभी हाथ नहीं आता ।
 प्रत्यु का कोई समय नहीं ।
 समय सब घावों का मरहम है ।

Orientation	Range
Sense of Time	Future-Oriented(Goal-oriented)

한국인들을 시간에 대한 의식이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과거 지향적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음과 속담에서는 볼 수 있다.

시간이 약이므로, 참고 견디면 먼 훗날 자기가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고생도 한때이고 끝이 있다.
피로움 속에서도 낙이 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제 잘못은 모르고 조상 탓만 한다든가.
운고이지 신이며, 도둑 묘에 잔 부어 놓는다며, 갇힌 생각 하늘을 그리워한다.

Orientation	Range	
Sense of Time	Past-oriented	Future-Oriented

d) 행동

인도인들의 행동은 정서적이 아니라 행동적이다. 인도 사람들의 향시 동적인 면은 일상 언어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를 'आप कैसे है?', 'मैं ठीक हूँ'과 같이 말하는 표현에서 행동 지향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속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सूत न कपास जुलाहों में लड्डम लड्डा करना.

जल्दी सोना, जल्दी उठना बच्चे को स्वस्थ, धनी और बुद्धिमान बनाता है

भगवान उन्ही की मदद करते हैं जो खुद की मदद करते हैं

Orientation	Range
Activity	Doing (Action-oriented)

한국인들의 행동방식은 속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보면, 어떠한 목표를 정하면, 그를 위해 매진하는 다부진 면과 목표의식이 뚜렷하다고 보여진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거지도 부지런해야 더운밥을 얻어먹는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다.
하늘은 부지런히 농사 하는 사람은 굶어 죽게 하지 않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간 것 보다 나쁘다

Orientation	Range
Activity	Doing (Action-oriented)

e) 사회관계

인도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계급제도(Caste system)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가 발전하면서 서구의 문물과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집단의 의식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신분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상하의 계급이 없어지게 되었다. 인도인들은 가족과 우정을 높이 평가하고 강조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모습을 속담 속에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एक दोस्त के बिना जिम्मे मरने के बराबर होती है
 सच्चा मित्र वही जो समय पर काम आए।
 एक आदमी अपने दोस्तों से जाना जाता है
 खून पानी से भी गाढ़ा होता है

Orientation	Range	
Social Relationships	<Collaterally>	Individualism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집단의식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전통과 집안, 학연과 지연에 연연하는 면이 다분하기 때문, 한국인들은 우리집, 우리집사람, 우리 엄마라고 하듯이 나 보다는 가족과 집단을 더 중요시 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예쁜 자식 매 한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조각 더 준다.
 옷은 사궤수록 좋고 친구는 오래 사궤수록 좋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마저 잃는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느냐?

Orientation	Range	
Social relationships	Linearity <Authoritarian>	Collaterally <Collective Decision>

맺음말

본 연구에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표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의 언어 문화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여 한국어 언어문화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두 언어에 비슷한 문형이 많지 않아서, 학습자가 모국어의 간섭을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와 힌디어의 구조적 계층에서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어려운 항목에 관한 난점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모든 특징을 갖추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있어서는, 학습자가 한국의 실제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한국어의 적극적 배경 교육은, 의사소통에 발생하는 오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사-학습 방법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인 힌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며 힌디어의 간섭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교사가 두 언어의 구조와 학습자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해소 시켜야 된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특정 표현의 문제들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 비교된 요소와 같은 표현 방식의 차이, 중의성과 모호성, 역사적인 지식 필요한 표현, 관용구, 이른바 뉘앙스들을 연구해 봐야 성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연구와 같은, 한국어와 힌디어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힌디어교육에서도 기여 하게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의 언어적 혹은 문화적인 배경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 학습자나 인도어 배우는 한국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함으로 느끼며, 필자가 이 연구를 앞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REFERENCES

- [1] 김혜수(2000), A study on English expressions Reflected in cultural differences
- [2] 정동빈 외 (1994), 언어와 응용언어학II 영어 교육론 서울:한신 문화사
- [3] 정성중 (1996), 영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와 문화교육 연구
- [4] Balasubramaniam, K. & V. Ganeshan (1977), Proverb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 An aspect of cultural interference, Readings in Foreign language (L5) teaching in India.
- [5] Brooks(1968), Teaching Culture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1.
- [6] Damen(1997), Culture learning :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USA
- [7] Hills, M.D. (2002), Kluckhohn & Scrodttbeck's Values Orientation Theory, General Psychological Issues in Cultural Perspectiv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 [8] Karunakaran, K.P. (1969), Mother tongue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in A. Poddar (ed.)
- [9] Kluckhohn, F. R. & Strodtbeck, F.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 Row, Peterson.
- [10] Lucy, J.A.(2001), Sapir-Whorf Hypothesi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 [11]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2] Roy, A. (1997), Bilingualism and contrastive analysis in languages.
- [13] Sapir, E.(1949), Language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8th Ed.
- [14] Sapir, E. (1985), Selected writing of Edward Sapir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 [15] Whorf, B.L.(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Ed. J.B. Carroll.